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한 가지 부족한 것

옛날에 어느 의좋은 형제가 함께 산길을 가다가 우연히 금 덩어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뛸 듯이 기뻐하며 금덩어리를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꿈에 부풀어 기분 좋게 길을 가던 형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형제는 어느 큰 연못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걸음을 멈춘 동생이 금 덩어리를 꺼내 연못 속으로 집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얘야, 너 무슨 짓이냐?” “저는 금덩어리가 생긴 순간부터 형이 없어졌으면 하는 못된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어요. 형님, 그래서 금 덩어리를 버렸습니다.” 그러자 형이 동생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했구나. 나도 그랬단다.” 그러고는 자신의 금덩어리도 꺼내 연못 속으로 힘껏 던져 버렸습니다.

두 형제가 형제애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둘이 함께 가는 길에 아마 비극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돈이면 무엇이나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의 사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복음 말씀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삶의 목적”이 되고 생명보다 가족애보다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는 재물입니다. 그런 재물을 많이 소유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지만 그는 머뭇거리다 포기합니다.

무엇이 그를 돌아서게 했습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 주어라.”(마르10.21)는 스승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을 머뭇거리게 한 것은 재물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재물의 위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힘보다” 강하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님께서는 그런 “재물”을 없앤 뒤에 오라고 하십니다. 그는 실천 할 수 없었고 재물의 든든함을 포기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바로 재물이나 황금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하느님과 재물,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또는 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마태6.24)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공수래 공수거(空手來 空手去)라고 곧잘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는 너무나 자주 알맹이 없는 이론과 구호에 그치고 맙니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진리에 어긋난 삶을 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힘을 하느님의 힘보다 강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물의 힘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은 재물이 넘쳐나도 부족함을 떨치지 못합니다. 물질에 사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재물을 관리하고 잘 쓰도록 맡기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뜻 있는 일에도 희사하며 교회 발전을 위해서도 협조해야 하겠습니다.

예천 본당 조상래 다미아노 신부

전 례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그 어떤 것보다도 날카로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환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매일 말씀으로 오시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믿으며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알고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청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61번 '주 예수와 바꿀수는 없네'

본기도

† 주님,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지혜서 7장 7절-11절

안 내 :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묵 상 : 이 세상의 지혜는 충분하다 생각해도 늘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금보다도 보석보다도 진귀하며 끊임없는 광채가 흘러 나옵니다.

화 답 송 :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제2독서 : 히브리서 4장 12절-13절

안 내 : 하느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묵 상 :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속 생각과 모든 감정을 읽고 가려냅니다. 힘이 있고 살아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생활하십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 복음 10장 17절-30절

강　　론 : '한 가지 부족한 것'(1-2쪽)

예물준비성가 : 511번 '미약하온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 175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성체 후 묵상

생명의 주님이신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땀 흘려 애써 가꿔 모은 재물들과 땅과 집,
하물며 부모 형제들에게서도 자유로워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를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부와 명예와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격으로 여겨지며 사람을 대우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또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고귀한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재물이나 권력, 명예나 지위는 인간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 하는 사람,
하느님 앞에서 말씀대로 기쁘게 사는 사람,
하느님 말씀대로 살려고 욕심을 내는 사람,
하느님이 주신 달란트를 공동선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는 사람.
이런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느님의 기쁜 나라가 세워지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

※ 공소사목 성금

오광호　　*5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4,27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 림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 (십자가, 묵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기증 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유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10월 14일(연중 제28주일) 모전동 본당
· 10월 28일(연중 제30주일) 하망동 본당

■ '성경 통독 일기' 연수(의성지구)

· 일시 : 8월 4일(토)부터 격주 토요일 14~17시 10월 27일, 11월 3일
· 장소 : 의성성당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등
· 회비 : 1인 4만원
· 대상 : 의성지구 신자

■ 열린성경강좌 6

· 일시 : 10월 15일(월)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참가비 : 1인 3천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안계 본당 주임)

■ 여학생 수도 성소자 모임

· 상주/문경지구 일시 : 10월 21일(주일) 14:00
· 상주/문경지구 장소 : 모전동 본당

■ 예비신학생 10월 모임

· 일시 : 10월 21일(주일)
· 장소 : 교구청

■ 청년연합회 생활성가 음악캠프

· 일시 : 11월 11일(주일) 09:30~21:00 파견미사(18:30)
· 장소 : 안동교구청 대강당
· 밴드 : 생활성가밴드 팍스(Pax)
· 참가비 : 1인 1만원
· 신청마감 : 10월 31 일(수) 까지 사목국으로

▣ 꾸르실료 월례미사

· 일시 : 10월 22일(월) 20:00
· 장소 : 송현동 성당

▣ M.E 제40주년 가족모임

· 일시 : 10월 20일(토) 10:00~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ME주말을 수강한 사제, 수도자, 부부
· 문의 : 임효균(제노비오) 010-3528-2370

▣ 1일 영성피정

· 일시 : 10월 20일(토) 10:00~17:00
· 장소 : 계림동 성당
· 강사 : 김현조 스테파노
· 회비 : 5천원
· 문의 : 성령쇄신봉사회 010-8447-0111

▣ 생명 평화 특강 - '낙동강이 죽어간다!'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실태 고발)

· 일시 : 10월 29일(월) 19:30
· 장소 : 목성동 주교좌 성당
· 강사 : 이상식 대건안드레아(전 가농 전국회장)
· 주관 : 안동교구사회사목 협의회

▣ 생명·환경연대 생태기행

· 일시 : 11월 3일(토)
· 장소 : 울산 태화강생태공원(십리대숲) - 울산 대왕암 공원
· 문의 : 안동 마명락 010-6300-1711 문경 안장수 010-8361-2087 상주 윤병권 010-7488-7564
· 참가비 : 1인 1만원(중식비 개인 준비)
· 선착순 : 120명

▣ 은총 제1차 꾸르실료 체험 신청 안내

· 일시 : 11월 15일(목) 16:00~18일(주일) 17:00 [3박 4일]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인당 12만원
· 접수마감 : 11월 2일(금)까지
· 신청자격 : 영세 후 3년 경과하였거나 견진성사 받은 분, 70세 이상 어르신
· 신청 : 본당 신부님, 꾸르실료 간사

▣ 가톨릭 상지대학교 신입생 수시 2차 모집

· 수시 2차 모집 : 11월6일~11월20일
· 입학문의 : 교무입학처 054)851-3021, 3023
http://ipsi.csj.ac.kr

<교구설정 5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교구민들이 안동교회사연구소의 「안동교회사연구소 자료집 7 - 간추린【안동교구 年譜】: 1726-현재」(2014년)를 통해 지난 교구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50년을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료집의 내용을 연재합니다.>

[1] 여명기에서 조선교구까지 : 1726-1910

◆ 1814년

►**3월**(부활대축일 며칠 후) 진보 머루산에서 체포되어 안동진영에 이송된 최 마르티노(56세)가 옥사(獄死)하다.

○ 진보 머루산에서 체포되어 안동에서 옥사한 최 마르티노의 형제인 최 안드레아(崔允金 58~59세)가 대구 감영에서 옥사(獄死)하다.

○ 진보 머루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박씨 부부(夫婦)가 체포되어 그 아내가 대구에서 옥사하다.

►**3월**(봄, 부활시기) 배교자(背敎者) 전지수의 밀고로 충청도 예산 여사울 사람 김경서(金京瑞, 프란치스코)가 일월산 중인 영양의 곧은정에 숨어살다가 체포되어 안동으로 압송되다.

○ 김복수, 김광복, 이희영, 김문악이 곧은정에서 체포되어 안동으로 압송되다.

►**3월** 청송 노래산 교우촌에서 2월 22일 체포되어 경주로 이송된 된 사람들 중 신입 신자들은 고문과 굶주림으로 배교하여 석방되었으나 박 바오로(徐碩俸 안드레아의 外孫), 청송 노래산에서 잡힌 박관서(요한), 전북 고산에 살다가 청송 노래산으로 옮겨 살았던 김 서방, 경상도 사람 김사일 등 7명이 경주에서 옥사(獄死)하다.

○ 노래산에서 체포된 박유달과 김가 팔리(김 팔리?)가 경주에서 옥사하다.

○ 노래산 교우촌에서 체포된 사람들 중 서석봉(안드레아)과 그의 아내 구성열(바르바라, 혹 최성렬) 및 사위 최봉한(여옥, 프란치스코), 김시우(알렉시오), 고성대(베드로)와 그의 아우 고성운(요셉), 김윤덕(아가다 막달레나) 등 7명은 대구로 이송되다.

►**4월 23일**(음력) 봉화 우련전 교우촌에서 김종한(본명 漢鉉 계원, 안드레아)과 신자들이 건사막골(개내골)출신의 예비자 이윤집(李允執)과 함께 체포되어 안동으로 압송되다. 그 후 김종한과 이윤집이 대구 감영(監營)으로 이송되었는데 이윤집은 대구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리던 중 옥사(獄死)하다.

○ 영양 곧은정과 봉화 우련전에서 모두 8명의 신자가 체포되다.

►**4월** 머루산 교우촌에서 강원도 울진〈갈전〉으로 와서 살던 김강이(金綱伊 시몬)와 아우 타대오를 체포하여 안동으로 압송하다.

►**4월** 김 약고배(金華春, 야고보)가 2~4월 경 체포당하다.

►**4월** 청송에서 체포된 신자 중 박 바오로, 박관서, 김 서방 등 7명이 옥사하다.

►**4월** 김홍금(일명 김명숙)이 안동에서 옥사하다.

►**5월** 울진(울진군 서면 왕피리 갈전?)에서 체포되어 안동으로 압송된 김강이(金綱伊 시몬)와 아우 마태오 형제가 강원도 관찰영인 원주 감영(監營)으로 이송(移送)되다.

►**5월경**(양력 6월 초?) 홍주 다래골(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사람 최봉한(崔奉漢, 프란치스코, 32세, 서석봉 안드레아의 사위)이 대구 감옥에서 옥사(獄死)하다.

►**6월 18일**(음) 경상 감사 이존수(李存秀)가 청송(음 2월 22일 노래산)과 진보 . 영양 등지에서 체포하여 대구로 이송되어 온 천주교 신자들을 심문하고 자단권(自斷權)을 넘어서는 중죄인(重罪人)으로 결정한 안치룡, 김 야고보, 고성대, 고성운, 서석봉, 김진성, 김악지, 신광채, 손두동, 구성열, 김윤덕, 영양의 김종한, 이희영, 김희성, 김복수, 김광복, 진보의 김시우, 최윤금, 김광억과 그의 처 분금과 그의 아들 종건, 김흥금과 그의 아들 장복과 딸 작단, 김험동과 아들 갑득, 이시임, 정인 등 28명의 처벌에 대해 조정에 장계(狀啓)를 올리다.

►**6월** 충청도 청양 사람 김시우(김시우, 알렉시오, 34세)가 대구 감영에서 옥사하다.

►**6월** 청송 노래산에서 잡힌 김윤덕(아가다 막달레나, 50여세)이 경주를 거쳐 대구 관덕정에서 배교(背敎)하였다가 다시 관장(官長)을 찾아와 배교를 번복하자 심한 고문으로 옥사(獄死)하다.

►**10월 18일** 청송 노래산과 진보 머루산(지금의 영양군 석포면 포산동)에서 안동 포졸에게 체포된 충청도 홍주 사람으로 연풍에서도 살다가 옥사한 김흥금(金興金 일명 金明淑)의 아들 김장복(金長福)과 딸 작단(金作丹)이 대구감영까지 이송되어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작단(金作丹)은 배교하여 석방되다.

○ 영양 곧은정 . 봉화 우련전 등지에서 체포된 신자 중 이 때까지 배교하지 않고도 살아남은 충청도 보은 사람 안치룡(安致龍, 50세) . 충청도 청양 수단이(청양군 사양면 신왕리) 사람 김 약고배(金若苦排, 金華春, 야고보) . 김시우(金時佑, 알렉스) . 김종한(金宗漢, 계원, 안드레아) . 충청도 덕산의 별암(예산군 고덕면 상장리) 출신 고성대(高聖大, 고여빈, 베드로)와 아우 고성운(高聖云, 고성일, 요셉) . 김광복(金光福) . 여사울(예산군 신암면 신종리)사람 김희성(金稀成, 김경서, 프란치스코) . 서석봉(徐碩奉, 안드레아) . 여자 구성열(具性悅, 혹 최성열 발바라) . 여자 이시임(李時壬, 안나, 35세)의 13명에 대한 경상감사의 사형 건의 보고에 따라 형조가 주청(奏請)하자 왕이 윤허(允許) 하다.

►**10월 21일** 김장복(金長福, 1796~1815, 19세, 김흥금의 아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 전 대구감영에서 옥사(獄死)하다.

►**10월** 김명숙(일명 金興金, 51세)이 사형 집행 전 대구 감영에서 옥사(獄死)하다.

-다음에 계속-

살림터 이야기

땀의 결실

김옥한 리오바
(안동가톨릭문인회)

수확의 계절 가을이다. 혹독한 무더위와 가뭄을 견디고 결실을 맺은 곡식과 과일들이 대견스럽다. 더위와 목 타는 가뭄에 고생도 많이 하였다. 이 풍성한 가을의 열매는 땀 흘린 농부의 몫이다. 가뭄에 물을 주고, 병충해를 막아주며 애쓴 노력으로 얻은 결과다. 풍요로운 가을들판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농부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우리 집도 농사를 조금 짓는다. 건강밥상을 생각하며 만물상처럼 이것저것 조금씩 심었다. 올해는 유난히 폭염과 가뭄이 이어져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는 채소에 물을 주느라 남편도 고생이 많았다. 이른 아침이나 해거름에 물을 주었는데, 조금 늦으면 잎을 축 늘어뜨린 각종 채소들을 볼 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땀 흘리며 물주고 가꾸었기에 모양이 작고 굽어도 귀하게 느껴져 버리지 못하고 밥상에 올렸다. 농사는 땀의 결실임을 실감하며 노력 없이 얻는 결실은 없다는 호두농부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어느 마을에 호두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다. 농부는 열심히 일하였지만 날씨 때문에 실패가 잦았다. 어느 해는 센 바람으로 꽃이 떨어져 호두가 조금만 달렸고, 어느 해는 장마가 와서 결실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어떤 해는 태풍이 불어 여물지도 않은 호두를 모두 떨어뜨리기도 했다. 불만이 가득한 농부는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내년에는 제발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낮에는 밝은 햇살과 알맞은 바람을 주시고, 비는 가끔씩 저녁에 내리게 하시고 못된 태풍은 얼씬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농부에게 “그렇게 해주겠노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약속대로 좋은 날씨가 이어졌다. 계절에 따라 햇볕도 알맞게 비춰주고 바람도 살랑바람이 불었으며, 비도 적당하게 내렸다. 농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잠을 자는 것뿐이었다. 가지가 찢어질 듯 많은 호두들이 주렁주렁 열렸다. 예년에 비해 몇 배나 많은 호두를 수확하게 된 농부는 싱글거리며 호두를 깠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호두 속이 텅텅 비어 있었다. 화가 난 농부는 하느님을 원망하며 따졌다. “이토록 많은 수확을 하였는데 왜 속을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했다. “고난이 없는 것에는 알맹이가 없는 법이다. 폭풍 같은 시련과 가뭄 같은 고통이 있어야 껍데기 속 영혼이 깨어나 여무는 것이다. 결실은 땀과 노력으로 채워지느니라.”

인생도 이와 같다. 고통과 절망을 딛고 일어난 인생이 더욱 값지고 아름다운 법이다. 고난을 딛고 장하게 일어선 강영우 박사의 삶을 되새겨본다. 중학교 때 부모님을 여의고 축구공에 맞아 두 눈마저 잃은 그는 남동생은 철물점에, 여동생은 보육원에 맡겼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세상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목표를 세우고 불굴의 의지로 빛을 향해 자신의 앞길을 헤쳐 나갔다. 도전할 때마다 장애물이 나타나 길을 막아서기도 했지만 목표가 확고했기에 무너뜨릴 힘이 생겼다. 불에 달구어져 수많은 담금질로 단단해지는 쇠처럼 숱한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의 목표는 더욱 강해져 목사가 되었고, 장애인 최초로 백악관에 근무하는 영광을 얻었다. 흩어졌던 가족도 한곳으로 불러 모아 살며 아들 둘을 박사로 훌륭하게 키워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현실의 고통이 힘들더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노력할 때 성공이라는 결실이 주어진다. 힘든 나날의 연속이지만 우리에게 용기를 주려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고난을 두려워 마라, 성공은 시련을 이겨내고 고통을 견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니라.”